

연론 언론중재위원회 NEWS 사람

인터뷰

방송인 유인경

세상읽기

질문과 고문

옛 그림과 차 한잔

왕이 사랑한 화가

2017
Vol.209

11





“사진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사진 강의를 할 때마다 꼭 들려주는 이야기다. “사진에 사람을 넣으면 이야기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된다.”

반문이 돌아온다. “어떤 사람을 넣을까?”

다시 들려준다. “당신의 취향에 달렸다. 누구를 원하는가?”

그래도 망설이거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겐 조언을 준다.

“그 장소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면 재미있지 않을까?”

10월 초에 충남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을 찾아갔다. 시기가 일러서 은행잎은 녹색에 더 가까웠다. 대신 곡교천변에 해바라기밭이 있었다. 1백만 송이가 핀다는 강원 태백시 구와우마을의 해바라기 축제장에 비하면 아주 손바닥만 하지만 가을 별 아래 반짝이는 해바라기들이 마음에 쏙 들어서 카메라를 들어올렸다.

내가 한 말, 나도 당연히 실천한다. 사람을 기다렸다. 가장 예상치 못한 등장인물이 쏙 나타났다. 아이언맨.

그가 왜 저런 분장을 하고 저기에 있을까? 모르는 편을 택했다.

CONTENTS

2017 November Vol.209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 Eye-Net people.pac.or.kr

 pacblog.kr
 facebook.com/pacnews
 goo.gl/t9Kjeu

발행인 양인석
편집인 조남태
발행일 2017년 11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계문사 T 02-725-5216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 02 **클로즈업**
 - 04 **인터뷰**
방송인 유인경
 - 06 **미디어트렌드**
따옴표 안에 숨어 버린 '허위사실'
 - 07 **심리학브런치**
조절의 환상
 - 08 **언론법 이모저모**
익명인 듯 익명 아닌 익명기사
 - 09 **언론중재위원회 NOW**
배려와 이해, 조정의 길
 - 10 **세상읽기**
질문과 고문
 - 11 **영화 속 설득이야기**
너와 나의 목표는 동일하다
 - 12 **옛 그림과 차 한잔**
왕이 사랑한 화가
 - 14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실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보다는 집중 최선보다는 최적화

방송인 유인경

1990~2016 경향신문 부국장 겸 선임기자
2008~2012 제23~24대 한국여기자협회 감사
2009 관훈클럽 제56대 편집위원

저서 <퇴근 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 (2017)
<내일도 사랑을 할 딸에게> (2015)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2014) 외 다수



66

베테랑 기자, 일하는 엄마
입담 좋은 방송인, 베스트셀러 작가.
그녀를 가리켰던 이 모든
수식어를 뒤로하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겠다는
지혜로운 이기주의자
유인경을 만났다.
그녀와 나는 유쾌한 수다에
언론사람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99

Q 필력도 좋으신데 언변도 뛰어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A |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말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며 사는 것은 제 성격이 뽀뽀한 덕분입니다.(웃음) 글도 마찬가지로예요. 대단한 문장가는 아니죠. 10년, 20년 전에는 제 글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 받

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적에 연연하지 않고 제 감상에 맞는 글을 쓰며 버텼더니 쉽고 편하게 말하듯이 글을 쓰는 시대가 오더라고요. 이여령 선생님께서 20세기가 무겁고, 진지하고, 엄숙한 '베토벤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밝고 경쾌한 '모차르트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의 추천으로 쓰게 된 책 <오늘도 출근하는 딸에게>는 무려 10만 부가 팔렸는데 시대적 요구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인세를 볼 때마다 잘 쓴 책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더라고요.

Q 지난 2016년 '창간 이래 최초의 정년퇴임 여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경향신문에서 퇴직하셨습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A |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 중에서 제가 정년을 채운 취재부 여성기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편집·교열기자 중에는 먼저 정년퇴직한 선배님들이 있을 거예요. 90년대 닛컴 열풍이 불면서 아직 제의가 있기도 했지만 경향신문의 위상

도 점차 높아졌고, 무엇보다 딸이 엄마가 경향신문 기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여 열심히 다녔더니 어느새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마라톤으로 치면 완주한 셈인데 비록 1등은 아닐지라도 완주할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Q 주로 문화부, 여성부에서 경력을 쌓으셨습니다. 여자에게 더욱 잘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A | 결혼 후 3년간 쉬다가 잡지에 육아 칼럼을 쓰면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엉터리로 키우면서 그런 글을 썼네요.(웃음) 경향신문에서 일하게 된 것은 1990년부터인데 이때가 여성계에서는 엄청난 변혁과 혁신의 시기였습니다.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고 성희롱 등 여성의 권익에 대한 주제가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경향신문은 발간 면수를 늘리면서 독자의 반이 여성인데 신문에 여성 관련 기사가 너무 없다면 실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기사를 찾았죠. 딱 제 스펙이었습니다.(웃음) 여성

관련 이슈가 계속 지면에 담겨 사람들에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노력했기에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기자로서 살아있는 기사를 쓸 수 있었어요. 제 주요 취재원은 아이와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치르는 시험을 보며 교육과정을 알 수 있었고, 이웃집 아이들이 다마고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다마고치로 인한 수업 방해 문제 등을 생생하게 기사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Q | 직장 and 사회에서 차별을 느꼈던 적이 있는 지요?

A | 저는 성격이 무딘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노골적인 차별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읽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을까? 지영이가 너무 예민한 데?’라고 생각했죠. 저는 더 버라이어티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점차 ‘지영이가 겪은 불이익, 차별, 왜곡된 시선을 나는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립스틱 색이 짙으면 ‘어제 내가 본 술집여자 and 립스틱 색이 똑같네’, 일찍 출근하면 ‘남편 하고 싸워서 일찍 나왔어?’라는 남자상사의 말에 나는 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상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튀는 행동이나 문제제기를 극도로 꺼리는 문화였기 때문에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제가 맘을 고쳐먹어야만 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유리천장을 함께 깨줄 용기 있는 남자 동료는 왜 없었을까?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 속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던 케빈 코스트너 처럼 말이죠. 남자 동료와 함께했다면 훨씬 수월했을테지만 소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Q | 저서와 강연에서 ‘태도’를 자주 언급하시는데, ‘태도’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의 기술, 즉 ‘처세술’로 이해해도 되는 것 인가요?

A | 태도는 말이나 표정 또는 행동 등을 통해 나타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가장 쉽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태도가 오로지 타인에게 잘 보이고 호감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작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이고,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려는 습관을 통해 무례하고 천박한 욕심꾸러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이는 누구인가요?

A | 저는 인생 공부라 결국 사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기자의 장점은 세상을 폭넓게 구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함 한 장으로 성공한 사람부터 살인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박사가 기억에 남아요.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와닿았어요. 제가 이 박사님께 ‘어떻게 찬란한 길을 만들어 오셨는데 후회되는 게 있으세요?’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양손에 가방을 들고 다닐 만큼 바쁘셨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혀서 너무 열심히 살지만 말고 열심히 놀기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웃음) 그래서 모바일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보며 스스로에게 쉴 시간을 줍니다.

얼마 전 만난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께서는 ‘100년을 살아보니 어르신가요?’라고 물었더니 ‘나이를 먹는다고 노인이 아니다. 매일 하나씩 배워가며 성장하는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일 뿐이다. 반대로 젊어도 비관적이고 자신의 인생에 심드렁한 사람은 노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사소한 것이라도 매일 하나씩 배우고자 노력합니다. 책을 읽다 실존인물이 등장하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찾아보며 조금씩 제 인생을 확장합니다. 기자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견해해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Q | ‘일과 삶의 균형’이란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중요한 문제인데, 균형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A | 완벽한 균형이란 없어요. 균형은 정확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을 오가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추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가정보다 직장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외부 원고를 많게는 9개까지 썼기 때문에 매일 야근해야 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원고를 써놓고 아침방수에 출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균형이에요. 회사에서는 일만 생각하고 집에서는 오로지 엄마 노릇만 했어요. 덕분에 아이에게 엄마가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었습니다. 양보다는 질, 주어진 시간을 집중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얼마 전 딸에게 엄마랑 했던 일 중 가장 좋았던 게 뭐냐고 물었더니 반신욕이라고 답하더라고요. 딱 20분 걸려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와 스킨십도 하며 아이의 어떤 이야기든 열심히 들어주었더니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안정감이 형성되더라고요.

이와 더불어, 저는 최선이라는 말에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최선의 배신’을 주제로 책을 써볼까 합니다. 최선보다는 ‘최적화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듯이 제 에너지도 지속가능한 만큼만 써야 합니다. 워킹맘에게 최적화된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육아는 도우미나 남편의 도움을 받고 회사에서는 내 능력 밖의 일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이기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해보려고 해요. 내년이면 60세가 되는데 나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최적화된 상태, 가장 나은 상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즐기고 또 싫은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옴표 안에 숨어 버린

'허위사실'



〈“컵라면 4개, 사과 하나가 추석선물?” 경비원 아버지가 받은 선물〉 추석을 앞둔 9월 3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비원 아버지가 컵라면과 사과를 추석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고 한 종합일간지가 온라인 기사로 보도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세상에 줄게 없어서 컵라면을 선물이라고 주냐. 기가 찬다”는 댓글에 추천 1만 6,911개가 붙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경비원의 아들이 아버지가 간식으로 받은 컵라면과 사과를 추석 선물이라고 장난으로 속였던 것이다. 그러자 이 언론은 〈컵라면 추석 선물〉 논란 경비원 아들 “장난으로 보내신 걸 속상해서 올렸다” 해명이라는 제목의 ‘유체이탈’ 기사를 올렸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받아쓰고, 또다시 해명을 받아썼다. 이처럼 특정 주장의 진위 여부는 파악하지 않은 채 주장 자체를 부각해 보도하는 경향을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한다. ‘발표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옴표 저널리즘’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매카시즘 광풍’이다. 1950년, 선거를 앞뒀으나 주목을 받지 못한 미 연방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가 미국 국무부에 공산당원이 205명이며, 자신이 명단을 갖고 있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 언론은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사화했고 1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대대적인 ‘마녀사냥’이 이어졌다. 물론, 매카시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었다.

이처럼 ‘따옴표 저널리즘’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빈번히 등장한다.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받아쓰는 보도가 많으니 정치권에서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확정기를 자처하는 언론 덕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같은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다. 201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일이 대표적이다.

선거와 관련한 ‘따옴표 저널리즘’은 점점 늘고 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팀이 지상파 3사 뉴스를 대상으로 대선 때 후보자와 관련된 주요 의혹보도의 제목에 따옴표가 들어간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02년 29.1%에 불과했으나 2007년 57.7%, 2012년 81.3%로 급증했다. 다매체 환경에 접어들면서 보도 경쟁이 심화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온라인 환경에서 언론은 일상적인 ‘따옴표 저널리즘’ 기사를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등 온라인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따옴표 저널리즘’ 기사를 쏟아낸다. SNS상 유명인의 발언이나 폭로성 글을 검증 없이 전달하는 식이다. 지난 9월 서울시 240번 버스 운전기사가 아이만 내리고 어머니가 내리지 않은 채 출발하고, 세 위달라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과 다른 커뮤니티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리고 언론이 게시글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사람들은 언론보도를 ‘검증된 것’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론이 오히려 왜곡된 정보 확산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언론은 소문이나 폭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취재활동을 통해 주장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언론의 일상이 돼야 할 ‘팩트체크’가 특별 코너처럼 다뤄지는 현실은 언론이 사실 확인에 얼마나 소홀한지를 역설한다.

최근 언론은 ‘가짜뉴스’ 현상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제대로 된 뉴스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240번 버스 논란 때 SNS나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소식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일부 언론은 무책임한 누리꾼에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언론에 분노하고 있다. 240번 버스기사가 커뮤니티 글을 사실처럼 단정한 인터넷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지 광진경찰서에 문의했다고 한다. 부실 선물 논란을 빚은 경비원의 자녀는 해명 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펴 나쁜 커뮤니티 게시글이 아닌 기사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진짜 문제는 언론의 따옴표 안에 숨어 있다.

조절의 환상



술을 얼마나 마셔야 알코올중독일까요?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해야 게임중독일까요? 하루에 술을 몇 잔 이상 마셔야, 담배를 몇 개비 이상 피워야 중독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독을 단지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물론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두 개비를 피우는 사람에 비해 니코틴에 중독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뇌가 계속 많은 양의 니코틴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금연을 다짐하더라도 담배를 끊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접하는 양이나 시간이 많아질수록 남용에 빠지거나 의존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고독하게 사는 상태에서 중독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회식이 싫었는데 술자리가 없는 날에는 뭔가 허전해 혼자 술잔을 따르고 있거나, 도박성 게임이 아니더라도 돈을 걸고 따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 중독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독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건강 문제보다도 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독이 '얼마만큼 우리 삶을 방해하느냐'의 문제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술을 마시더라도 완전히 취해서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른다면,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음날 결근을 한다면 그로 인해 내 생활은 많이 다치게 됩니다. 같은 양의 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잠을 잔 경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중독으로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까닭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기 때문인데요,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중독의 핵심입니다. 한 번 깊이 빠져 본 대상에게는 더욱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술 한 잔으로 술자리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특별히 절제를 잘 해서가 아니라 술을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중독된 적도 없으니까요. 반면, 오래 전 일이지만 저는 한때 생활에 심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게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즉, 저는 게임을 한 판만 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술을 좋아하고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저와 반대겠죠.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SNS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자제력을 믿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접속해야만 하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서 접속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SNS 어플을 삭제하고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했을 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절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면 알코올중독이었던 사람은 술자리에 서 딱 한 잔만 마시겠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굳이 몇 달간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박 사이트에 접속만 하고 베팅은 하지 않겠다, 쇼핑몰에서 구경만 하고 아무 것도 사지 않겠다, SNS에 올라온 남들의 글을 10분만 구경하고 나오겠다, 모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절의 환상을 버려야 중독에서 회복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조절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뭇 하러 빠지겠습니까? 처음부터 조절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나의 의지력을 시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익명인 듯 익명 아닌 익명기사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간지 사회면에 실리는 기사들은 거의 다 실명기사였다. 범죄의 성격, 종류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표시되었다. 심지어, 사건의 핵심과는 거의 무관한, 예컨대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가해자가 탑승했던 택시 넘버와 운전사 이름까지 다 적었다. 지금 보면 당황스럽기도 한데, 기사란 모름지기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당시엔 지배적이었나 보다.

세상은 어느덧 변하여 익명기사가 원칙 내지는 대세가 되었다. 당사자가 공인이거나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실명보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 성명을 적는 대신 ABC라 표기하고 영상에는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음성변조 등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익명처리를 했음에도 소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다.

2012년 한 일간지가 ‘강력부 검사들이 ‘브로커’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A 검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피의자들에게 아는 변호사를 알선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기사에 검사의 성명은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처리는 별 소용이 없었다. 법원은 기사에 적힌 소속과 부서, 담당했던 사건의 내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언론사는 패소했다.¹⁾ 2014년에는 한 인터넷매체에서 성형수술 부작용에 관한 사례를 기사로 다뤘다. 이 기사에서 해당 병원이나 의사에 관한 정보는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담당의사 B씨’라는 표시가 전부였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실제 문제되었던 병원은 기사에 표시된 성형외과가 아닌, 이비인후과 의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관련 정보(피해자가 선임한 법무법인 이름과 분쟁 내용)가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역시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었다.²⁾

네티즌 수사대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이들 기사에 표시된 정보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익명처리에서 불거지는 혼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 정도 익명처리라면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이 알 턱이 없다는 기자들의 판단이 익명인 듯 익명 아닌 익명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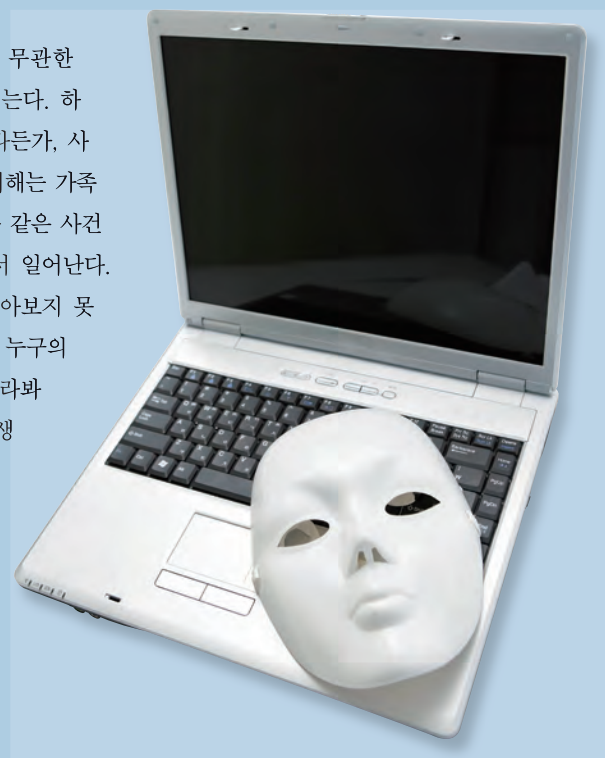
익명처리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알아볼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 그 판단의 주체가 중요하다. 기사에 의한 당사자의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판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에서 익명성 판단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법조관계, 경찰 종사자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과 그 주변인들이 ‘A 검사’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 관계자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 담당의사 B씨’라고 한 것이 원고를 지목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지금까지 어떤 판결에서도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기사에서의 익명성 판단의 주체는 보도 대상자를 모르는 일반인이 아니다.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 동료, 자영업자라면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판단 주체로 삼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이 바닥이 좁잖아”라고 하는, 그 바닥 사람들을 기준으로 익명성을 판단해야 한다.

기사는 사건과 무관한 모든 사람들이 읽는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같은 피해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같은 사건 당사자의 주변에서 일어난다. 정말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할 뜻이라면 누구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단5006059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나12972 판결

배려와 이해, 조정의 길

2014년 10월 햇벌이 따사로운 어느 가을날, 프레스센터 15층에 위치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실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그동안 함께 했던 중재위원들과 다양한 사건의 당사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주 새로운 사건을 만났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대립된 두 가치의 조화로운 공존 또는 비교형량을 통한 우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정과 중재 시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 적절한 해결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리가 법원의 소송과 다른 점은, 소송처럼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과 그에 상응하는 증거만으로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를 이루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은 사건도 당사자들, 특히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주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예상외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하려는 마음, 서로 양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와 더불어 중재위원들의 노력이 합하여져 최상의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결국, 언론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인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 더욱 잘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중재위원으로 심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신청인이 종종 언론사에 해당 기사 전부의 삭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는 신뢰도의 문제, 공익을 위해 보도한다는 자긍심,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자부심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사 전부의 삭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사삭제청구는 언론중재법 제30조 제4항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리 과정에서 기사삭제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신청인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사삭제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언론사가 문제 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피해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판결 참조). 즉,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지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언론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사삭제청구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저는 중재위원으로 심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 한 사건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정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 회의와 조사 등을 통해 노력한 중재위원들과 조사관들,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갔던 순간들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전지민 변호사님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7년 10월 12일까지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질문과 고문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의 시입니다. 벌레가 먹다 남긴 찌그러진 과일을 할아버지가 팔고 있습니다. 과일은 등성등성 썩었습니다. 지천 한 닢을 든 꼬부랑 할머니가 시골 장터 위아래를 스무 번 넘게 오르내립니다. 돈이 가난해서부터 과일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삼대독자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미음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평생 과일 구경을 못했습니다. 해가 누엠티엠티 넘어갈 무렵, 할머니가 웅망한 할아버지 과일 한 알을 사가지고 갑니다. 과일을 먹은 아들은 방긋이 웃고 마지막 숨을 넘깁니다. 함석헌은 시골 장터의 문드러지고 좀먹은 과일 같은 것이 그의 시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밭고랑에서 눈물 사이사이에 나오는 생각들이 그의 시가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세상사람 모두가 찬성한다며 고개를 끄덕일 때,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세상의 알뜰한 유혹을 물리칩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아 마음이 외롭습니다. 그때 '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석헌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에서 저와 같이 묻습니다. 마흔다섯이 될 때까지 시 한 줄 써보지 못하다가 시인이 된 까닭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옥중에서 어머니를 떠올린 것들이 애절한 시가 되었습니다. 일곱 살 되던 어느 늦어가는 가을날, 조금 못난 손아래 여동생을 구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부드럽고 단연한 목소리로 "애 그건 사람이 아니냐?"라고 함석헌에게 물었습니다. 함석헌은 자신의 씨울 사상 밑바닥의 반석은 어머니의 그 질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질문이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마흔다섯이 될 때까지 삼십 년 간 어묵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글에 자초지종을 썼습니다.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마을 형이 공설 운동장 앞에서 어묵을 사렸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한 그릇만 더 사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며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갑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어묵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훗날기 동계 훈련을 할 때, 늦은 새벽 포장마차에서 술 해장을 할 때, 먹을거리라고 달랑 어묵 반찬 한 가지일 때조차 어묵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서른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어묵하고 원수질 일이 아니다 싶어 아둔한 고집을 꺾었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는 어묵을 조금 먹습니다.

어떤 다짐 하나를 삼십 년 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질문해서는 안 될 것을 묻지 말자는 다짐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몇 학번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학번'은 일부 사람들의 신분 기호여서 무턱대고 학번을 묻는 것은 폭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보다 오륙십 년 전에 어떤 대학을 졸업했다는 '학벌' 정보를 유명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력으로 소개하는 언론을 접하면 불편합니다. 사람들에게 군대를 다녀왔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더러 고향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고향을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고향 마을 앞 실개천에 미꾸라지가 헤엄치는지, 마을 뒷산 봉우리에 흰 구름이 하루에 몇 번 쉬어 가는지 거

꾸 묻는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학번과 대학과 병역과 고향과 종교와 떠나 온 나라 따위를 묻는 질문은 대부분 불순해 보입니다. 정보를 쉽게 얻어서 이익스럽게 패거리를 짓겠다는 의도가 뽐나기 때문입니다. 안일하게 함부로 던지는 그와 같은 질문은 정신적 고문입니다.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기제로 쓰입니다. 질문을 빙자한 고문일 따름입니다.

질문은 힘입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분의 최근 책에 보면, 헌법재판은 권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권력은 속성상 헌법 원칙을 변명과 편법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다수의 편견과 선입관을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습니다. 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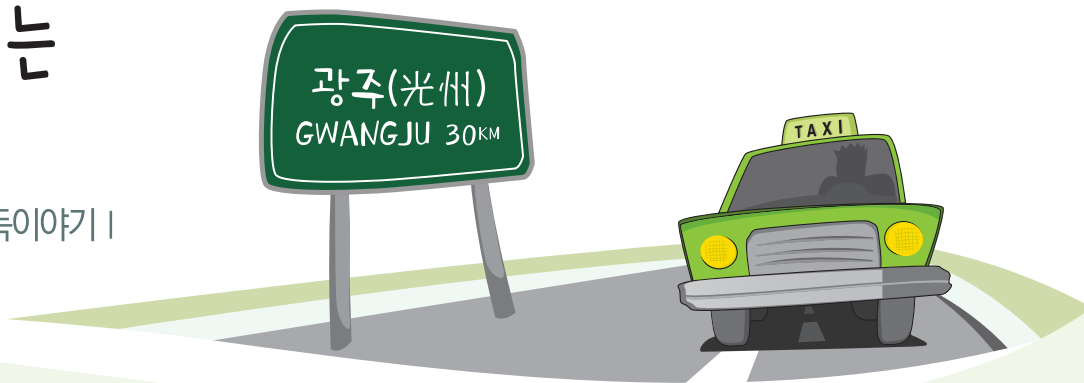
을 통제하고 시민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헌법재판은 권력에게 가장 아픈 질문이라도 용기 있게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작금의 헌법적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용기 있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냐, 라고 그의 어머니가 함석헌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헌법재판소에게 그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대의제 국가에서 국회는 입법자이자 분립한 여러 권력에게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청문의 주체도 국회입니다. 정치적으로 국정을 감시하고 특별히 국정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모두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국회의 질문이 설득하는 힘을 가지려면 우선 스스로에게 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문과 감사와 조사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질문과 고문을 섞어 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언론도 한가지입니다. 간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자입니다. 언론이 스스로 살아 있는 자기 질문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함량 미달 고문 따위를 확대 재생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함석헌의 시를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너와 나의 목표는 동일하다

영화 <택시운전사>에 숨겨진 설득이야기 I



올해 첫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택시운전사>. 광주로 향하는 독일인 기자 힌즈페터를 태운 택시운전사 만섭이 5·18 민주화운동을 목격한 후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군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천만 관객의 발길을 극장으로 이끈 이 영화 곳곳에는 설득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에 숨겨진 설득의 원리들을 두 번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섭 제가 지금 김포공항에서 오는 길인데요, 저 양반이 디게 높은 비즈니스맨인데 근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중요한 서류를 광주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군인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힌즈페터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무슨 문제요? 내가 광주에 못 가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 내 보스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 서류를 못 가져가면 진짜 큰 일 난다. 군인한테 전해라. 중요한 보스에 중요한 서류다.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

만섭 베리 베리 임포트먼트 페이퍼라고 하는데, 거참.

영화 초반 광주로 들어가는 이 장면에서 만섭과 힌즈페터는 ‘권위의 법칙’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편식하는 아이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골고루 먹으라고 하시던데”라고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관련 분야의 전문가 혹은 지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일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설득기법입니다.

만섭 택시비, 현드레드싸우전스 원 나우.

힌즈페터 택시비는 서울 가서 준다고 했잖아?

만섭 노노 광주 덴저러스. 그러니까 선불이야. 퍼스트 머니, 아니지 레이디 퍼스트니까 머니 퍼스트. 코리아 비즈니스 스타일이야. 나우 노 머니? 아이 고우 서울. (시동을 끄며) 유 초이스.

힌즈페터 (5만원을 건네며) 나머지 절반은 서울에서 주겠다. 네가 선택해!

만섭 (혼잣말로) 어쨌! 그새 그거를 따라하냐? 그래도 5만원이 어디냐. 아이 초이스.

친신만고 끝에 광주에 도착한 만섭과 힌즈페터가 협상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만섭은 영어도 할 줄 알고 서울로 데려다줄 수 있는 기사는 자신밖에 없다며 본인의 가치를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또 광주가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죠. ‘회귀성의 법칙’이 사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힌즈페터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옵션 제시와 함께 다시 만섭에게 선택권을 돌리면서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만섭과 힌즈페터는 광주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서울로 돌아가려 하지만 차가 고장 나고 시간도 늦어 통역을 도왔던 대학생 재식과 함께 광주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 밤 만섭 일행은 방숙궁이 불타는 것을 보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사복경찰에게 쫓기게 됩니다. 재식은 결국 붙잡히고 마는데요, 사복경찰은 만섭과 힌즈페터에게 카메라와 필름을 내놓지 않으면 재식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재식 (사복군인에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외...외국 기자양반도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게 영어 좀 하게 해주쇼. 나 좀 쪼까 살려달라고 할랑께.

(총이 내려지고) 내 목소리 들리죠? 여기 군인은 내가 붙잡고 있을 테니까 제발 도망쳐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에 알려 주세요. (만섭과 힌즈페터를 향해) 거기 사복 올라가요. (총소리) 살아 돌아가세요! 아임 오케이!

만섭은 재식을 살리기 위해 힌즈페터에게 카메라를 포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재식은 오히려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설득하죠. 여기에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라는 중요한 설득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제시하는 목표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와 부합할 때 우리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식은 기자인 힌즈페터에게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진정한 목표를 일깨우고, 그것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바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후 만섭은 결국 막다른 곳에서 사복군인들에게 잡혀 빨갱이로 오해받고 두들겨 맞게 됩니다. 이 극적인 장면에는 어떤 설득 요소가 숨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재화가 김홍도, 정조의 위민정치 붓끝으로 드러내다



단원 김홍도, 〈우물가〉, 《단원풍속도첩》, 보물 527호, 국립중앙박물관



단원 김홍도, 〈소림명월도〉, 《병진년화첩》, 1796년, 보물 782호, 삼성미술관 리움

조선시대 화가 단원 김홍도(1745~1806?)라고 하면 ‘풍속화’가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시골장터의 씨름 장면을 곳곳에 담아낸 그림을 비롯해 서당 그림, 우물가 그림 등 단원이 남긴 풍속화는 해학과 익살로 가득 차 더없이 정겹습니다.

하지만 단원을 그저 풍속화가라고 치부해버린다면 곤란합니다. 도화서 화원이었던 단원은 풍속화는 물론, 산수화 초상화 불화 행차도 영모도 신선도 등 모든 부문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한 화가니까요. 단원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홍석주는 ‘김홍도를 풍속화 작가로만 아는 것은 그를 다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단원의 산수화를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단원의 그림은 산수화가 가장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부자시의도〉(8폭 중 6폭만 전해짐)는 조선 산수화 중 백미로 꼽힐 정도로 걸작입니다.

이렇듯 못 그리는 장르가 없었던 단원은 시와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었답니다. 그가 그린 자화상 〈단원도〉에는 전통악기인 거문고를 타는 화가 자신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자화상인 〈표의풍류도〉에서는 당비파라는 악기를 유유자적 뜯고 있습니다. 단원의 스승이었던 표암 강세황(1713~1791)은 문집 〈표암고〉에서 단원의 음악사랑이 각별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준수했던 단원은 일찍이 그림솜씨를 인정받아 스무 살이던 1764년에 도화서 화원이 됩니다. 이듬해에 화원들을 대표해 영조의 즉위 40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그려내 당시 세손이던 정조(1752~1800)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며, 뜻과 생각을 나눕니다. 정조는 자신이 지향한 위민정치를 단원의 붓끝을 통해 매끄럽게 구현할 수 있었고, 단원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었던 거지요. 최고 권력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화가는 조선 후기 르네상스 시대를 구가하며 예술혼을 실현합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패트론’이 있었기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던 겁니다.

단원은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군선도>를 그려 진상합니다. 그의 나이 서른두 살 때입니다. 가로 약 6m의 큰 화폭에 신선들의 행렬을 세 파트로 나뉘어 그린 그림입니다. 활달한 필치로 화면 전체에 힘과 리듬을 가득 채우면서 태평성대를 기원한 거지요. 단원의 그림 중 이 그림은 국보(139호)로 지정됐습니다. 조선 회화사를 대표하는 최고작이지요.

곧이어 단원은 창덕궁 후원에 새로 건립된 '규장각'을 그립니다. 정조가 새로운 혁신사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창건한 규장각을 세밀한 필치로 담아냈습니다. 정조는 젊은 문신들을 선발해 규장각에서 연구에 전념케 함으로써 중추적인 학술기관으로 키웠습니다. 수시로 이 곳을 찾아 학문과 정책에 대해 기탄없는 토론을 이어갔지요. 규장각의 중요성을 간과한 단원은 화폭 중앙에 규장각을 크게 강조해 그리고, 주변 경치를 에워싸듯 묘사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당당히 솟아오른 백악산 응봉을 배치하고, 그 옆에 삼각산을 곁들였습니다. 응봉은 물론 군주를 상징하지요. 삼각산은 삼정승이고요. 규장각 주변의 풍성한 소나무들은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가리킵니다. 그림을 본 정조가 흡족한 미소를 띠지 않았을까요. 보기에 따라선 '왕을 너무 찬양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화서 화원은 어디까지나 왕실에 소속된 화가입니다. 나라의 녹봉을 받으며 어진이나 국가행사를 그리는 일이 주 업무였으니 '왕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단원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는 왕의 특별주문을 받아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풍속도첩으로 만들어 올렸고, 금강산 여행첩도 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조는 불세출의 화필인 단원이 마음껏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특히 단원의 풍속도첩은 저잣거리로 직접 나서기 어려웠던 임금의 위해 민중의 삶을 속속들이 담아낸 그림이란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지금으로 치면 민중미술인 셈이지요. 물론 민초들의 어둡고 고단한 속내는 잘 반영되지 않았겠지만 단원이 200년 전 우리 선조의 삶을 끈질기게 그려냈기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 천재화가는 붓으로 당대 삶을 기록한 저널리스트였던 거지요. 고금을 통틀어 민중의 삶을 이렇듯 흥겹고 재치 있게 집대성한 미술가는 흔치 않습니다.

정조는 왕세손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화원 김홍도를 즉위 직후 등용해 국가행사 관련 그림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단원은 첫 작품 <규장각도>를 필두로, 정조의 화성행차를 다룬 <원행을묘정리의례>, <오륜행실도> 장년기의 대표작인 <송하맹호도> <병진년화첩>(보물 782호) 등을 그렸습니다. 말년의 걸작인 <주부자시의도>에는 정조가 화폭마다 감상평을 일일이 써넣었습니다. 이밖에 불화, 탕화, 화조영모화도 남겼으니 '안 되는 게 없는 화가' 임에 틀림없군요.

단원은 1788년 어명을 받고 금강산 스케치 여행을 떠납니다. 중인 신분이었던 그는 경북 안동 안기(安奇)에서 찰방(察訪, 역참을 관리하

던 중6품 외직)으로 일했는데 "천하제일 명산 금강산을 사생 해오라"는 임금의 명에 관동(關東) 10군의 명승지를 탐사합니다. 그리곤 <금강산도>를 완성합니다. 안타깝게도 단원이 정조에게 어람용으로 바친 두루마리 그림인 '금강산도'는 간 곳이 없습니다. 다행히 몇 점의 금강산 산수화가 전해지는데 '겸재 정선의 뒤를 이어 조선의 진경산수를 완성했다'는 평이 제기될 정도로 역작입니다.

사대부 화가 겸재 정선이 진경화풍을 창안하며 과감한 생략으로 독보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화원 김홍도는 탁월한 기량과 사실적 묘사로 진경화풍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단원은 정조가 1800년, 원어섯의 나이로 갑자기 승하하자 날개 꺾인 새처럼 추락했습니다. 환갑의 나이에 애송이 화원들에 섞여 매년 시험을 쳐야 했고, 아들의 학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화가는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년작인 <삼공불환도> <기로세련계도> <추성부도>는 모든 걸 송두리째 잃은 노화가가 무심히 그려낸 빛나는 걸작입니다. 그리곤 화가는 자취를 감춥니다. 그의 사망시점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태양이 지니 달은 애달파하며 스르르 사라진 걸까요? 국민화가의 죽음은 이처럼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 <규장각도>, 1776년, 지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COMMISSIONERS ▶▶▶ 위원동정



중재위원 임기만료

중재위원 14명이 10. 12.자로 임기가 만료되었다.

중재부	성명	대표이력
서울제2중재부	지연옥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
	권순택	(전)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상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제5중재부	오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세창	(전)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장
서울제6중재부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배영곤	변호사
서울제8중재부	전지민	변호사
부산중재부	오창호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구중재부	송승부	(전)대구MBC 보도국장
경기중재부	오광건	단국대 교양교육대학 초빙교수
충북중재부	정정목	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제주중재부	양원홍	제주영상문화연구원 원장

민영 위원 <진화하는 경제위기와 언론의 새로운 리더십> 세미나 토론

민영 중재위원(서울제8중재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이 10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언론학회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IMF 외환위기를 비롯한 한국 경제위기 당시 언론보도 행태를 살피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합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안승국 위원,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위원 선임

안승국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 변호사)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0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안 위원은 제작·편성 법제도 개선,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황용석 위원, <뉴스 미디어와 4차 산업혁명> 토론회 발표

황용석 중재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10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스 미디어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황 위원은 산업 분과 발표를 맡아 “혁신형 콘텐츠 생산을 위한 공용 인프라 지원과 기술혁신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위원, 한국언론학회 제45대 회장 선출

이재진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10월 21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5대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이 위원은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학회를 만들어 언론학회 50주년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기는 2018년 10월부터 1년이다.



NEWS ▶▶▶ 위원회 뉴스

사무처 직원 대상 인문소양교육 특강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前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가 10월 13일 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디지털미디어 시대 신문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양 교수는 저널리즘의 미래는 결국 독자의 신뢰에 달렸으며, 언론사는 차별화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고, 디지털 저널리즘에 투철한 언론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혁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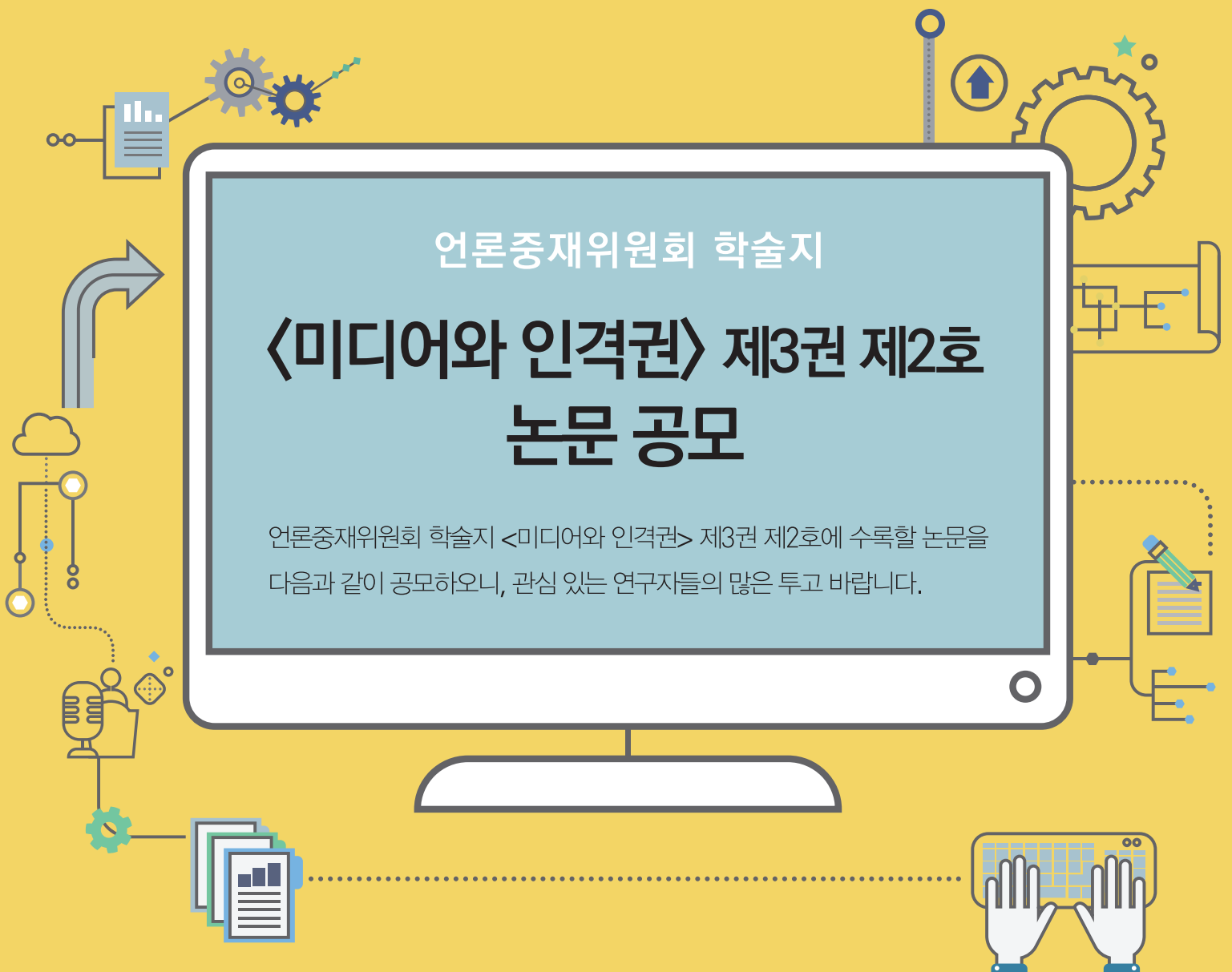
위원회, 2017년도 국정감사 종료

10월 19일 국회에서 위원회에 대한 2017년도 정기국정감사가 이루어졌다.

2017 미래방송인박람회 참가

위원회가 10월 27일 한성대에서 개최된 <2017 미래방송인박람회>에 참가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미디어, 방송과 관련된 직업을 꿈꾸는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 바로알기 퀴즈’, ‘뉴스기사 속 시정권고 사례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위원회를 홍보하고 인격권 유형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2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2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공모분야

<연구논문> :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포함)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제출마감

2017년 11월 13일(월)까지

논문접수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악성 루머 제조기' 잡으러
흙수저, 오지랖, 아이돌이 뭉쳤다?



인혜선 · 이진오 · 이소의 · 조수복 연출 | 김충근 프로듀서 | 신윤수 극본 | 우 은

촬영 | 민준기 동시녹음 | 한경택 분장 | 홍은령 의상미술 | 최경희 스크립터 | 박준영 로케이션 | 유휘영 원안 | 신윤수 편집 | 김종근 슬레이트 | 박준영 시각효과 | 민준기 DJ | 민준기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